

테비

리허설 전날 저녁

02



테비

리허설 전날 저녁

02 섬 이야기

넓은 투톤 민트 앤 크림 케이블 니트 가디건과 따뜻한 테라코타 라운지 팬츠. 편안하게 구부린 자세로 양손으로 오른쪽 엉덩이에 열린 낮은 캔을 잡습니다. 링 풀이 부착되어 상단에 눌러집니다. 시냇물이나 공기 중의 거품이 없습니다.

현대의 탄산 포종차. 핑린 차에 탄산수를 더한다

함께 마신 차

TEA.TOYS

의상 02 보기